

# 10년 방황 대우일렉, 동부 품으로

## 인수금액 2700억 이번주중 매매 본격약 워크아웃 불구 올 매출 20% 이상 늘어

광주에 기반을 둔 대우일렉트로닉스(대우일렉)가 빠르게 이번 주 동부 그룹의 품에 안길 것으로 보인다. 무려 5차례의 실패 끝에 새 주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외환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대우일렉 채권단과 동부컨소시엄은 빠르게 이번 주 중 대우일렉 매매 본격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인수금액은 27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우일렉이 안고 있는 일종의 채무 500억원 규모의 기한부 환어음(유상스)을 동부 측이 떠안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동부그룹은 지난 8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써냈던 가격 3700억원보다 500억원 정도 저렴하게 대우일렉을 인수하는 셈이다.

통상 본격약 체결 후 매각대금지불 시한으로 두 달 가량이 주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대우일렉 인수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그룹은 대우일렉 인수로 그룹 간 수직계열화가 가능해져 새 성장동력을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중 동부하이텍은 가전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생산하고, 동부제철은 냉장고와 세탁기에 쓰이는 강관을 생산한다. 또 신사업으로 육성 중인 로보틱스(LED(발광다이오드) 분야)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우일렉의 해외 네트워크 장점으로 꼽힌다. 해외사업 비중이 높은

한 틈새 상품들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경기침체에도 대우일렉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1조9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거둘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00억원대의 영업이익도 기대하고 있다.

가전업계에서는 “대우일렉은 워크아웃 기업으로 추가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면 기업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우일렉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탱크주’를 내걸고 돌풍을 일으킨 옛 대우전자의 후신이다.

지난 1999년 ‘대우사태’로 그룹에서 분리돼 워크아웃에 들어가며 위기를 맞았다. 2002년 대우일렉으로 이름을 바꾼 구조조정과 해외법인 등을 재정비한 뒤 2006년부터 새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모두 다섯번의 실패를 맞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999년 8월	대우전자 워크아웃
2002년 11월	(주)대우일렉트로닉스 출범
06년 9월	인도 비디오킷-리플루드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7년 1월	비디오콘과 MOU 파기
08년 2월	모간스텐리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08년 8월	모간스텐리페 인수 포기
09년 1월	차순위 리플루드 컨소시엄과 매각협상 결렬
10년 4월	이랑계 가전업체 연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1년 5월	엔텍홀딩과 매각협상 결렬
11년 6월	차순위 일렉트로닉스 외 협상 결렬
12년 8월	동부그룹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대우일렉의 영업망을 활용해 그룹 계열사 제품의 해외 마케팅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우일렉이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이다.

대우일렉은 냉장고와 세탁기, 주방기기 등 백색가전 전문기업으로 확실히 자리잡았다. 특히 벽걸이형 드럼세탁기 등 기존 가전제품이 찾지 못

## 현대·기아차 4종 美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현대 그랜저

기아 트랙스터

‘쏘울’을 기반으로 한 3도어 콘셉트카인 기아차 트랙스터가 세계 최고 권위의 디자인상인 ‘2012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현대·기아차는 25일 현대 그랜저·싼타페·벨로스터 터보와 기아 트랙스터 등 4개 차종이 미국 디자인 ‘2012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 디자인 자동차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상은 시카고 아테네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과 유럽 건축·예술·디자인·도시 연구센터가 매년 전자, 운송, 가구, 컴퓨터 등 포춘 500대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대상으로 부문별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벨로스터 터보

에 이어 2년 연속 수상했다. 기아차는 2010년 K5와 스포티지R, 지난해 프라이드 5도어와 콘셉트카 KV7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이다.

올해 그랜저는 역동적인 캐릭터 라인과 풍부한 볼륨감의 조화로 다양한 준대형 세단 이미지를 살린 점이, 싼타페는 대담하고 볼륨감 있는 표면에 세련되고 정제된 라인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뤄 고

급스러운 중형 SUV 스타일을 완성한 점이 호평받았다. 벨로스터 터보는 3개의 문이라는 독특한 차체 설계를 적용해 실용적이면서도 쿼트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트랙스터는 역동적이고 과감한 디자인으로 기아차 특유의 젊고 활기찬 이미지를 부각한 점이 점수를 받았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중개업자 10명중 4명 부동산시장 내년 회복

전국에서 영업 중인 부동산 중개업자 10명 중 4명 이상은 국내 부동산시장의 회복 시점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1분기로 전망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서비스(www.serve.co.kr)는 18대 대통령 선거 직후인 20일~23일 회원 중개업자 1천211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 회복이 예상되는 시점’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43.8%가 이같이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장 회복시점을 내년 2분기로 전망한 중개업자는 전체의 23%, 4분기는 18.3%였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6.7%가 내년 상반기에 부동산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장 회복 예상 시점을 2014년 이후로 점진 중개업자는 한 명도 없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36.1%가 ‘다주택자 규제완화 등 지원 대책’을 꼽았고 22.5%는 부동산 가격 회복 정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연립뉴스

## 500대 기업 내년 대졸 채용 올해와 비슷한 수준

내년에 섬유·제지·식품업계의 일자리는 늘고, 건설·제약·금융업계는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500대 기업의 대졸 신입직원 채용규모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취업포털 인크루트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일자리 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채용 계획을 확정된 288개사의 내년 고용예정 인원은 총 3만252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들 기업들의 올해 실제 고용인원(3만2936명)보다 1.3% 낮아 감소한 수치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채용 규모를 크게 줄이지는 않았다.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은 112.9명으로 올해(114.4명)보다 1.5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섬유·제지(2.9%), 식품(2%), 기계·철강·조선(0.8%), 석유·화학(0.7%)은 채용 인원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14.9%), 제약(-6.9%), 금융(-3%), 유통·물류(-2.9%), 자동차·부품(-1.6%), 전기·전자(-0.6%) 등은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상위 100위 이내 기업의 채용 인원이 0.6% 늘어날 전망이다. 최상위 30대 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된 16개사는 올해보다 2.5% 늘어난 1만3920명의 신입 사원을 뽑기로 했다.

하지만 100위 밖의 중견·중소기업들은 최대 13.2%까지 채용을 줄일 계획이어서 일자리에도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100대 기업의 채용 규모는 1만 9573명으로 전체의 60.2%에 달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지역 중기 수출기업 도약 적극 지원”

### 정상봉 중진공 광주본부장



“지역 중소기업의 건강과 성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24일 새로 중진공 광주지역본부장에 임명된 정상봉(54) 본부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내수시장을 뛰어넘어 수출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경제 발전과 기반을 한층 튼튼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 동성고와 국민대,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1985년 공단에 입사해 수출지원부장·충북지역본부장·경기북부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정진수 전 광주본부장은 청년CEO를 길러내는 청년창업사관학교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모범납세자 신용등급 올려준다

모범납세자는 내년부터 금융기관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국세청은 “금융위원회와 협의 거쳐 ‘납세자의 날’에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를 신용평가 때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대 혜택은 모범납세자 명단을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면 금융기관이 ‘모범납세자 선정 이력’을 신용평가 우대항목으로 반영해 적용한다. 해당 명단 제공은 당사자가 동의해야 한다. 이 혜택은 올해 3월 납세자의 날에 세무부장 이상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 1500여명부터 적용된다.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금융 거래 때 여신한도, 여신기간, 금리 등에서 좋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돼 납세자의 사업경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일례로 신용등급이 1단계 상승하면 시중은행은 은행별 차이가 있지만 대출금리가 연 0.5~0.7% 경감되고 신용대출 한도는 4000만원 정도 증가한다.

국세청은 또 모범납세자가 세무관서에 접수한 모든 민원에 대해 법정 처리기간보다 절반 이상 단축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범납세자 민원 우선처리제’를 9월부터 운용 중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KT 교육용 로봇 ‘키봇2’ 출시

KT 전남고객본부(본부장 김진철)는 성탄절을 맞아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 교육용 로봇인 ‘키봇2’를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키봇2는 한글, 영어체형 등 교육 콘텐츠가 풍부해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교육용 로봇으로,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KT 전남고객본부 제공

CJ 헬로비전 www.cjhelovision.com

디지털 방송의 모든 것이 자신있다

# 디지털 멀티플레이어,

## 헬로tv

hello tv

- 국내 최대 220여 개 채널 보유
- 생생한 지역정보
- 볼거리가 풍부한 VOD 콘텐츠
- 클라우드 게임, 노래방, 쇼핑 등 편리한 부가기능
- 쉽고 편리한 이용법
- 2시간 만에 다시보는 지상파방송

▶ 헬로넷 ▶ 헬로폰

SAVE 최대 56%

1588-3450

헬로넷 디지털 방송은 헬로tv로

\*위의 할인율은 가입 조건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Canon

#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